



주님 세례 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요한 스완슨 John August Swanson, <강>(일부), 세리그래프, 1987



# 예수, 세례 받으시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마르 1,4)”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가서 그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공생활의 처음을 죄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15,15)”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공생활의 끝을 죄인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한히 큰 죄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한 죄, 모든 죄인을 사랑한 죄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죄인임을 자처하며 세례를 받으셨고, 세상 전체를 덮고도 남을 죄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짜 죄인은 절대 자신을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혐오합니다.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이들을 멀리해야만 안심합니다. 그는 아픈 것도, 덜 가진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비싼’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가 혐오하는 대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본디 죄인이 아니신 분은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들을 가까이하시고, 나아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대하십니다. ‘굶주린 이, 목마른 이, 떠도는 이, 헐벗은 이, 병든 이, 감옥에 있는 이(마태 25,35-36)’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2독서 말씀처럼 “악마에게 짓눌린(사이를 멀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는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요한 16,8)”십니다.

죄인을 혐오하는 것은 나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너’만이 아닌 ‘그 어떤 너’라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 덕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됨의 길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법을 통해,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처럼, 그분의 세례도,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제 1 독 서	이사 42,1-4.6-7
화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 서	사도 10,34-38
복 음	마르 1,7-11

주일 진례

# 우리가 기도와 고행, 선행을 많이 해야만 은총을 받을까요?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선행, 고신극기를 많이 해서 하늘에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뭔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과연 기도와 고행을 많이 하는 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걸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야 이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어떤 교우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고행과 자선을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늘 잘 풀리지 않습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선행과 육신의 고행과 같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18년 교황청 신앙 교리성은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Placuit Deo)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신펠라지우스주의의 개인주의와 신영지주의의 육체 경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펠라지우스주의가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구원은 개인의 자력이나 순전히 인간적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체계에서는 하느님 성령이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신영지주의는 자기만의 주관주의에 갇혀 버리는 순전히 내적인 구원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에서 구원은 자기의 지적 수양으로 이루어집니다.”

펠라지우스주의란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죄를 피하고 구원을 위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은 필요 없다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느님과 세상, 영과 육, 선과 악 등을 대립된 입장으로 보는 이원론二元論적 사고를 취하고 있으며 믿음의 아니라 ‘앎(gnosis 그노시스)’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신펠라지우스주의와 신영지주의가 문제가 되는 근본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상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요 보편적 구원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선업이나 노력을 넘어 모든 이에게 성령을 통해 당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몸소 겪으신 인간의 삶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 모두가 중요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되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각자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지복직관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모든 우리의 노력 역시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수십 년이 걸리는 듯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의 차원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오직 현재만이 있기에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것입니다. 가령 필자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어느 형제는 오랜 기간 하느님을 잊고 세속의 일에 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60대 말, 어느 날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홀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이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형제의 온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고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어찌면 하느님의 은총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듯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이 하느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 ‘30년의 기적과 신앙’ 진교성당

지영백 루도비코

## 1. 진교본당 설립과정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를 각 지역 본당을 통하여 나누어 준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호물자 배급과 함께 진교 지역 전교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우스갯말로 “밀가루 서 말 짜리 하느님”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전교 활동의 시작은 양포공소 토양 위에서 신앙의 싹을 키웠습니다.

첫 영세자는 사천성당 ‘굴리에모 신부님’에 의해 1964년 3월 19일 3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65년에 집터를 80만 원에 사들여 45평 공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진교본당이 서 있는 아름다운 이 터는 본래 일제 강점기 신사였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활을 쏘는 궁도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진교 지역에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본당 설립의 필요성과 신자들의 바람이 커져갔습니다. 신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동공소가 읍 소재지로 옮겨 가면서 본당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진교공소는 하동본당의 관할 공소였지만 본당 승격의 꿈을 버리지 않고



기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긴 기도와 바람은 1990년 3월 27일 초대 본당 주임 신부인 ‘장민현 테오도로 신부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승격은 하였으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웃음을 나눌 성전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다시 기도하며, 성전 건립금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중에 곤양, 봉제, 북천, 옥중, 삼장, 서로의 6개 공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본당으로 엮어 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께 바라고 신자 형제자매들에게 기대어 1994년 10월 28일 너무나 아름다운 하느님의 성전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0년, 진교본당도 어엿한 청년 나이인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 전에 <진교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기획, 홍보, 출판 세팀으로 나누어진 위원회는 본당과 공소를 나누지 않고 모든 신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20주년 기념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신자들의 염원을 받쳐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의 신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차례 바자회를 통해서 오천여 만 원의(지역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진교본당 20년사」 책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20주년을 잘 마무리한 진교본당은 벌써 열한 분 신부님께서 사목하셨고 현재 열두 번째 신부님께서 사목 중이십니다.



## 2. 진교본당의 현재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실천하여 선교 활동에 남다른 모습을 보여 주신 '문서운 마리아 자매님'께서 한국천주교 평신도협의회에서 제정한 제17회 사랑 부문 가톨릭 대상을 수상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주님 곁으로 돌아간 '이민재 마태오 형제님'의 뜻을 이어받은 그 부모가 '마태오소성당'과 '진교성당 쉼터'를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봉헌이 아니라 안타까운 자식의 죽음을 주님께 봉헌하여, 고통 속에서도 주님 뜻을 찾으려는 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진교본당은 신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신앙이 그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교본당에서는 공소 시절인 1970년도부터 이미 '치명자의 모후'를 시작으로 레지오 마리에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14개 브레시디움과 1개 꾸리아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 신자 80%가 레지오 단원입니다.

## 3. 진교본당의 미래

올해 2020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교본당이 소속된 지역은 마산교구 진주지구 제4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남해, 사천, 삼천포, 서포, 하동. 여섯 개 본당이 모여 있습니다. 책 보면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큰 본당이라 부를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진교본당이 속한 하동군은 대부분 시골이 그렇듯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진교 지역은 면 단위로 현재 인구가 6,34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3개 공소(북천, 옥종, 삼장)가 소속되어 있지만 그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곧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마산교구의 미래, 한국 천주교의 미래를 시골 본당에서 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의 시골만큼 교회 미래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만큼 신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가 과연 또 한번의 박해가 온다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 할머니들께서 보여주는 말 없는 신앙, 침묵 속에 올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어두운 미래라도 진교본당처럼 하면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 교회가 신자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교회의 존재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진교본당의 사목 모습을 통해서 그 의문에 답을 얻습니다. 교회는 늘 신자들 안에 있고 신자들의 삶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어두운 미래는 없습니다. 진교본당은 30주년을 지나면서 더욱 하느님 가까이 다가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진교본당과 마산교구에 풍성한 주님 축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일 립



기억할 선종 사제  
이억민(바오로) 신부  
1996년 1월 17일



교구장 동정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11일(월) 19:30  
장소: 교구청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12일(화) 14: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1월 13일(수)

전국 성소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1월 15일(금)

교3 피정

일시: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

(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평협 상임위원회

일시: 1월 15일(금)  
장소: 교구청  
문의: 평협 055·249·7114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월 10일(수)까지  
(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1월 7일(목) 09:00~11일(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선발인원은 홈페이지(ipsi.cup.ac.kr) 참조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김종진(모세) 051·510·0702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마감: 1월 31일(주일)까지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가톨릭 트래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2021년 3월 2일/ 매일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악,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자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덕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 립

# 2021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12일(화) 14: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주제: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 사제품 대상자



**박진웅 프란치스코**  
첫미사 하대동성당  
2021년 1월 14일(목) 19:30



**심정현 요한드라살**  
첫미사 함안성당  
2021년 1월 13일(수) 19:30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품식은 최소 인원으로  
거행됩니다.

교우들은 마산교구 유튜브 채널(웹 주소: [bit.ly/성당](http://bit.ly/성당))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부제품 대상자



**계강준 요한**  
칠원본당



**김현 안드레아**  
반송본당



**임태근 모세**  
호계본당



**정병진 요셉**  
함안본당



**신승혁 요한**  
장평본당



**남하늘 엘리시오**  
대방동본당

## 교구 소식

### 교구 일반병원사목부, 마산, 창원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원에 성탄 선물 전달



교구 일반병원사목부(담당: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2020년 12월 24일 마산과 창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하여 돌보고 있는 세 병원, 마산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성탄 선물을 전달하였다.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남내내 코로나 확진자들을 꾸준히 수용하여 돌보아 왔고,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작년 11월 이후 급증된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 12월부터 전담 병원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

세 병원 의료진들은 성탄 선물에 감사하며, 환자들을 돌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 라멕의 과도한 복수와 인간의 타락과 폭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제 우리의 순례지는 하느님 곁을 물러난 카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창세 4,16에 의하면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 나와 에덴의 동쪽 낫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낫’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낫 땅에서 살았다는 말은 곧 세상을 떠돌며 살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후에 그는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담의 7대손이자 카인의 6대손인 라멕에 관해서는 짧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는 그자를 죽여 버렸고, 생채기 하나를 내면 아이 하나를 죽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카인을 해친 자는 일곱 갑절로 앙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신을 해친 자는 일흔일곱 갑절로 앙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큰소리칩니다(창세 4,23-24). 이것으로 보아 세상에는 카인의 때보다 폭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18,22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의 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만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하느님께서 왜 홍수로 세상을 벌하셔야만 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에는 야훼계 전승의 홍수 이야기와 사제계 전승의 홍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홍수의 원인이 이중으로 소개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홍수의 원인은 야훼계 홍수 설화에 속하는 창세 6,1-6과 사제계 홍수 설화에 속하는 창세 6,11-13에서 각각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 6,1-6에서 말하는 홍수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 6,1-4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어서 언급되는 인간의 악이 증대된 것(6,5-6)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화의 일부인 듯합니다. 이들의 결합으로 나팔족이라고 하는 장사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들 안에 당신의 영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기신 까닭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셨습니다. 나팔족들 때문에 세상에 악이 만연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뜻이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창세 6,5-6). 바로 이어서 사제계 홍수 설화에 해당되는 홍수의 원인이 언급됩니다(창세 6,11-13) 여기에서는 홍수의 원인이 인간의 타락과 폭력으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의 부서진 마음과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대비시킵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서 타락해 있었고,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폭력 때문에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 때문에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 말씀은 세상을 끝장내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이 온통 타락하였지만 그 가운데 예외적인 인물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으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였고(창세 6,9), 그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습니다(6,8) 여기에서 온 인간의 타락과 한 인간 노아의 선행은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 한 사람 노아에게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내십니다.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 낸 막다른 길에서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회로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처럼 홍수 이야기 안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 사이의 긴장이 나타납니다.



나탈리아 에르마코바 Natalia Ermakova, 《노아의 방주》  
성 니콜라스 러시아 정교회 성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